

## 갯벌 생태계 복원으로 가치 창출

도, 부안·고창 습지보호구역 지정... 자원화 박차

전북도는 갯벌의 가치증대 및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확대를 통한 갯벌자원화에 박차를 가한다.

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갯벌은 전국면적 2,487㎢ 중 118㎢로 4.8%에 불과하지만, 자연생태의 원시성 유지 및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저서생물과 수산생물, 멸종위기 종 등 다양한 조류의 서식처로서 보전가치가 뛰어나 해양수산부로부터 부안, 고창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간 개발 논리에 밀려 훼손돼 면적이 줄어든 갯벌 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도는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으로 고창 심원면 지역 갯벌복원에 1억원의 지원한바 있으며,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으로 고창 갯벌 및

부안 줄포만 갯벌의 보전·관리 등에 총 9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개발사업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세계 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해 인간과 갯벌이 공존하는 프리미엄 갯벌 생태 관광지 육성에 총 22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신규로 확대되는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과거 간척지 사업으로 논경지 및 염전화된 염소만 일대의 기존 방조제 정비와 갯벌 식생조성 등으로 갯벌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총사업비 70억원이 지원되며, 고창군 심원면 고전리 지역 방조제 제거 및 내측 복원 0.39㎢에 활용돼 담수유입 및 해수유통을 통해 갯벌 환경을 복원하는데 지원될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